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추진

윤 안철이 기자 | 승인 2024.09.11 21:21

고령농업인(65세~84세)대상 최대 10년간(1ha 월50만원) 직불금 지급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지사장 김재홍)에서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유도과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ha당 월 50만원,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뒤 매도하면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농어어촌공사관계자 따르면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또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1577-7770), 밀양지사(055-359-6308)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철이 기자